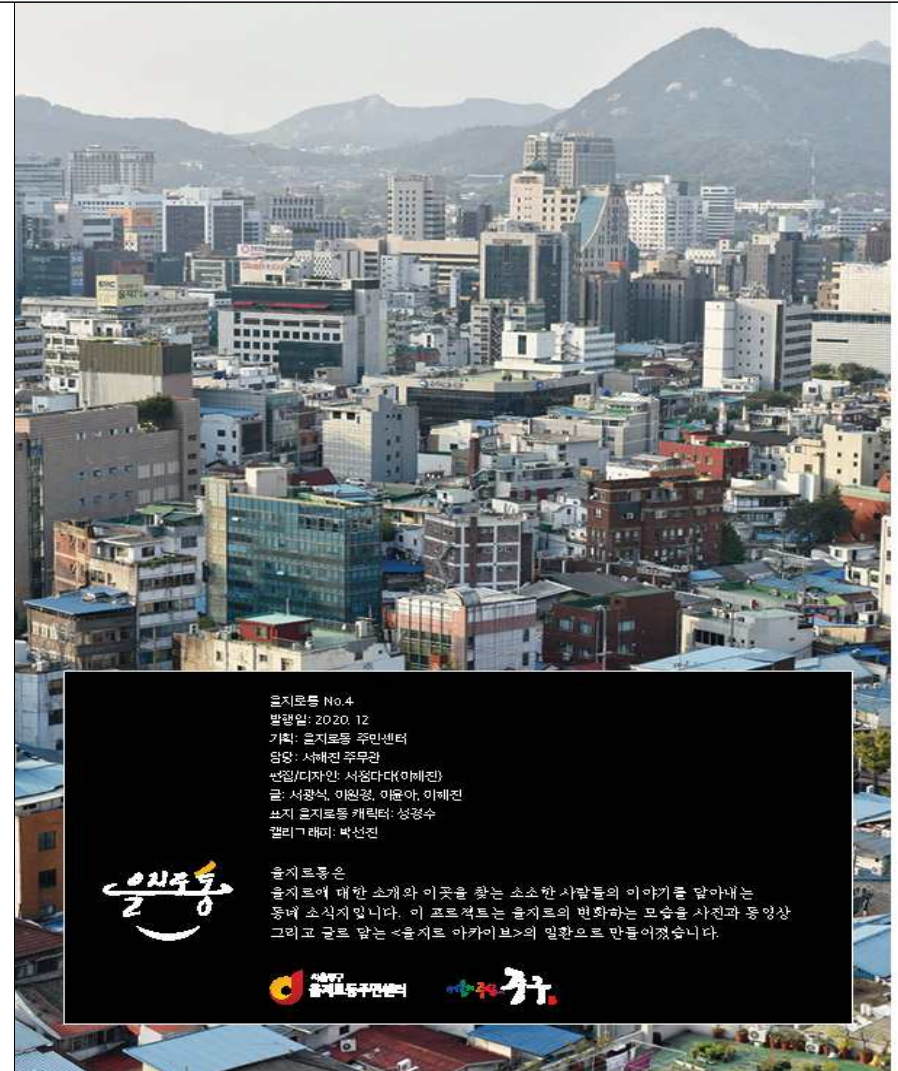




을지로동 No.4
발행일: 2020. 12
기획: 을지로동 주민센터
담당: 사해진 주무관
편집/디자인: 서정다(대아메진)
글: 서광석, 이원경, 이윤아, 이혜진
표지 을지로동 캐릭터: 성경수
캘리그래피: 박선진



을지로동은 을지로에 대한 소개와 이곳을 찾는 소소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아내는 동네 소식지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을지로의 변화하는 모습을 사진과 동영상이 그리고 글로 담은 <을지로 아카이브>의 일환으로 만들어졌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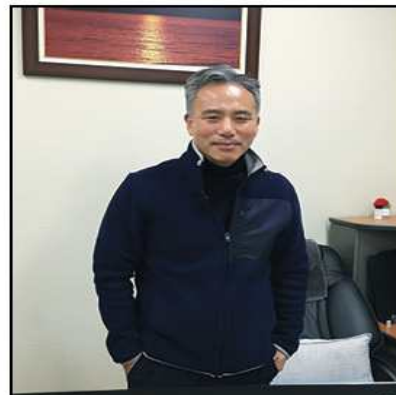
어제는 이력서이고 내일은 비스킷이요 오늘은 식언물입니다

불안은 예측 불가능한 두려움에서 연유한다. 코로나19라는 이제껏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사건으로 세계는 정지해 버렸다. 하지만 이 멈춤의 시간은 쉴 새 없이 달려온 우리에게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자각하게 하는 사건이지 않을까.

모두가 힘든 시기를 견뎌가고 있는 2020년, 을지로에선 지난 11월 비대면 마을축제, '을지주행'이 있었다.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을지로등 주민들의 모습과 그들의 희망이 마스크 릴레이 챌린지 사진에 담겨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도 따뜻한 위안이 되었다.

이번 인터뷰는 을지로의 2020을 정리하고자 을지로동장, 박용기 사무관을 만나 그의 이야기를 듣고, 2021년도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도 알아봤다.

인터뷰: 이혜진



을지로동장 박 용 기

이혜진(이하 이) :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박용기(이하 박) : 안녕하세요, 박용기입니다. 이제까지 중구에서 31년간 근무했고, 현재는 을지로동장을 하고 있어요.

이 : 와, 31년이네요?

박 : 저는 적게 한 거예요. 저희 선배들 보면 35년 재직하신 분도 있는데요.

이 : 그간 어떠셨어요?

박 : 1989년도 스물아홉에 공무원 시험을 우연찮게 봤는데 합격한 거죠. 켈 처음엔 모르고 시작했는데 하다 보니까 한테한테 지나고, 하다 보니까 부서도 옮기고, 하다 보니까 직급도 올라가고, 다들 똑같은 거죠. 31년 동안 힘 없이 달려왔어요.

이 : 을지로에선 청년 예술가들이 공무원과 만날 기회가 많은 것 같아요.

박 : 을지로가 서울 구도심이잖아요. 중구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문화적인 이야기들을 만들고 많은 청년예술가가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거죠. 하지만 오랫동안 이곳에 재직했던 분들은 상대적으로 소외감이 들 수도 있을 거예요. 을지로 일대에서 오랫동안 생업을 하였던 분들은 기름때 묻히는 '시더'부터 시작해서 자수성가하신 분들이 대부분이라 풍요로운 지금 세대를 다른 시야로 볼 여유가 없는 거죠. 어딜 가나 세대 차이는 마찬가지로 있는 것 같아요.

이 : 하지만 저는 어르신들이 부럽더라고요. 그들이 청년이었던 시대는 덜 풍요로웠지만 자신이 직접 '물'을 만들어 가는 세대이지 않았을까요?

이 : 을지로가 현재 안고 있는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박 : 을지로는 폭화 상권이 형성된 동네인데, 그게 부동산 때문에 무너지고 있어요. 그리고 시대가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발 빠르게 대처하지 못해서 전체적인 산업이 쇠퇴하고 있어요. 대기업, 중국 등 더 이상 경쟁이 안되는 거죠. 그래서 상권이 쇠락하고 낙후된 상황에서 도심 공동화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 빈 부분을 젊은이들이 파고드는 거죠. 옛날 가게들이 떠난 자리에 젊은이들이 새로 자리를 잡아요. 하지만 하나같이 다 카페, 음식점들이예요. 젊은이들이 소비적인 문화를 주도해가면서 사람이 몰리고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지죠. 그러면 젊은이들은 절세처럼 금방 떠나요. 홍대, 경리단이 쇠락한 이유도 그 때문이에요. 그리고, 을지로는 주민이 많지 않아요.

중구 인구가 12만 5천 정도 되는데 을지로등 인구는 1835명이예요. 15개 등중에 제일 꼴찌예요. 사업자가 많지만 ‘포’하고는 상관없어요. 을지로는 도심재생지구이고, 주민이 들어와 살만한 곳이 없어서 재개발이 추진되면 주상복합처럼 주거와 상업이 동시에 되는 건물을 구상하게 될 거 같아요.

이 : 주민참여예산에 대해 소개 부탁드립니다.

박 : 주민참여예산은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사업을 발굴하고 투표해서 선정되면 예산 편성과 집행을 할 수 있게 하는 획기적인 예산이예요. 구 자체 예산을 주민이 원하는 만큼 등에 배분해서 사용하는 것은 서울시에서는 중구가 유일하죠. 서양도 구청장께서 임기 2년 차에 마을 민주주의의 일환으로 주민들이 직접 예산 편성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한 예산안입니다. 2021년 을지로등에서 주민예산사업에 41건의 사업제안이 신청됐고, 그중 16개의 건의안을 추려서 투표를 했어요. 전자 투표와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의 투표를 합산해서 건의안 16개 중에 총 7개의 사업이 선정되어 5억 6천4백7십2만원이 확정되었고, 현재는 의회에서 예산안 심의 중입니다. 관건은 주민들의 직접 참여로 등에서 이런 기획을 해보는 것이 좋은 결실을 보는 것이죠. 구청장님의 직접민주주의 실현에 대한 의지가 강해서 작년부터 시행되었거든요.

이 :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의 애로사항이 있으셨나요?

박 : 주민들의 직접 참여로 등 주무관이 처리해야 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진다는 게 문제예요.

대부분의 예산안이 시설 설치인데, 전문가의 경험이나 필요한 부분을 행정적 공무원이 발주하는 과정에서 여러 어려움이 따릅니다. 주무관들이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일을 처리하는데 상황 판단이나 적절한 계약에 어려움이 많아요.

또한, 발주하는 과정에서 계약관계가 매우 복잡해 주민이 그 과정을 처리하는 것은 상당히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의 회계, 행정 서류 처리 등이 등 주무관들에게 물리는데요, 그 양이 상당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구청에 계약팀이 있는데 그쪽에서 일괄 처리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일반인에게는 회계 처리가 어렵지만 일괄적으로 그 업무만 하면 숙달해서 그리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등에 가중되는 업무도 줄어들어 서류 처리 외에 다른 부분들에도 더 많이 신경 쓸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을지로등 2021년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주요내용

- 1 을지로등 작은도서관 조성
- 2 안전한 을지로등 골목길 조성
- 3 을지로 르네상스 아카이빙 프로젝트
- 4 빗물받이 그레이팅 덮개 설치
- 5 을지로 12길 일대 보행환경 개선사업
- 6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
- 7 을지로 공공공간 화단 조성



이 : 올해 정년퇴임을 하신다고 들었어요. 감회가 남다르실 텐데요.

박 :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거죠.

제가 가고, 남은 한자리는 후배들에게 돌아갈 거예요. 89년도부터 지금까지 중구에서 근무 했어요. 31년 동안 몸담고 있었으니까 애정이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죠. 스콜라홀에 처음 공무원을 시작했는데 그 당시엔 늦은 나이였어요. 지금까지 부서를 몇몇 군데 옮긴 것 같아요. 31년 공직 생활 동안 사무관으로 온 것은 을지로가 처음이예요. 을지로는 제가 바꾼다고 바꿀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침체된 곳들이 활기를 되찾아서 오래 지속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옆모래 그만둔다니까 우리 후배들이 그냥 가기 뭐 하다고 여행이나 가자고 해서 강진의 가우도라는 섬에 후배들과 1박 2일로 보내고 왔어요. 좋더라고요. 마지막으로 공직생활을 정리하면서 나름대로는 저를 생각해 주는 사람들이 많아서 이제까지 못 살지는 않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이 남는 거죠.

이 : 퇴임하시고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박 : 앞으로 6개월 동안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일은 연말로 끝나지만, 퇴임은 내년 6월 말이에요. 내년 1월 1일부터 6개월 동안 공무원 연수를 주는데, 퇴임까지 마음 편하게 휴식하면서 앞으로를 생각하라는 서울시 공무원 정년 프로그램이예요. 이 기간 동안에는 다른 일을 할 수 없는데요, 제가 여유가 있으면 일단은 지방에서 두 달 살기 세 달 살기 같은 거 하고

싶어요. 요즘은 제주도 등 지방마다 다 있더라고요. 제가 정년 하면 60인데 지방에서 한 달 살기는 앞으로 더 나이 들면 하기 힘들 거예요. 노세노세 젊어서 노세라고 하잖아요.

이 : 여행을 좋아하시나 봐요.

박 : 현지 음식이 잘 맞아요. 나름대로 취미 생활이 다양해서 많이 다녔어요. 산은 젊었을 때 좀 다녔고, 해의 스쿠버다이빙도 좀 다녔고, 근래에는 운동을 하고 있어요. 산도 좋아해요. 걸 가보고 싶은 곳이 스위스의 마테호른인데 꼭 한번은 등정에 보고 싶고, 히말라야 에베레스트 트레킹도 해보고 싶어요. 보통 해발 5000m 정도니까 몸을 잘 만들어야 등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루라도 젊을 때 놀아야지, 젊었을 때 히말라야도 가고, 몽블랑도 가고.

직장 생활이라는 게 얽매임이 많아요. 지금까지 계속 얽매임 속에 있었으니 퇴임하고 여행을 많이 다니려고요. 근데 코로나19 때문에 당장 가질 못하니까 국내 여행을 다녀보려고요.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Yesterday is history, Tomorrow is a mystery, Today is a gift"
"어제는 역사이고, 내일은 미스터리이며, 오늘은 선물입니다."

저금이 나에게 주어진 최선의 시간이지 앎을 생각해요. 언제나 오늘이 최고 좋은 것이요, 오늘이 있어야 내일이 있으니까. 오늘 최선을 다하는 자세로 앞으로의 제가 살아가 인생을 만들어 가면 되지 않을까요. ◆◆

21세기 고향을 시로

내가 세운, 읍지로 일대를 기반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걸 알게 되면 사람들은 묻는다. 여기 다 재개발되면 어디로 갈 거냐고. 사람들은 같은 질문을 주변의 절공소 기술 장인들과 조영거리 사장님들에게도 던진다. '글쎄. 다 비슷비슷할 텐데. 어딜 꼭 가야 하나? 아니. 어디로든 갈 수 있지' 우물쭈물하는 사이 또 다른 곳에서 새로운 시작이 버거운 나이 지긋한 어르신들은 대개 "고향집 내러가야지~" 라고 답하신다. 불가항력적 상황을 마주하여 더 이상 시계 초침을 오른쪽으로 옮기지 못하는 때가 닥치자 고향집이 그들이 최종적으로 되돌아가야 할 곳으로 정해진다. 대도시에서 유년기와 청년기 모두를 보낸 나에게 있어 고향이란 단어를 떠올렸을 때 펼쳐지는 심상은 사실 조금 다르다. 따뜻함보다는 차가움. 복적이기보단 홀로. 공동체적 활동보다는 경쟁이 난무한.

글: 이원경
구경광과 관경적, 관람적의 말을 수집해 시작으로 빈익하기와 본 것을 상상으로 전달하기, 보는 시간 거부하기의 가능성을 탐구 중이다. 세상에 펼쳐진 풍경을 느리게 감상하길 선호하며 필름 사진 인작을 만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어릴 적 좋아하던 치지랑 버거와 피자보단 '있고 진한 고향의 맛'의 사골 국밥 같은 메뉴도 곧 잘 즐기는 서른 중반이 되었고 어느덧 스스로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며 하루하루 즐겁게 살아가고 있다.

나 역시 머리로 떠올리는 고향집 풍경은 아늑한 어느 산기슭 아래 수평이 맞지 않는 양은 밭상에 둘러앉아 수북이 담긴 밥과 나물 반찬. 보글보글 끓는 뚝배기 된장찌개와 제란 주박이. 그리고 그만 먹고 싶다고 하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손가락으로 감치를 콕콕 찌어 밥에 올려주던 할머니의 흐뭇한 미소로 귀결되는 장면 이긴 한데, 찬찬히 돌이켜보면 그것은 할머니와 엄마의 일상이었다. 그런데 어째서 난 고향의 이미지를 할머니 시골집 마루와 동네 이웃들에게서 캡처 하고자 한 것일까? 일 년에 두어 번 명절 때 내려가 한 두 주 머무르며 무조건적인 사랑과 관심을 받았던 그 시간은 내 부모의 취향과 문화의 출처를 읽을 수 있었던 시기라 그 공간이 어릴 땐 접히고 다시 펼쳐야 나타나는 단란 칸의 등경이 정말로 내 고향집인데 말이다.

그 공간 속의 공간. 하나 둘 건물이 부서져 가는 대도시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학교를 다니며 재개발로 인해 전교생이 신도시에 새로 지은 학교로 이전하여 뒤송송한 분위기에서 학기를 끝마치기도 했던 나의 학창시절. 등굣길 아스팔트 위 수북이 쌓인 질과 모래, 유리 파편들이 내 삶의 무대를 장식하고 그 위에서 전개되던 스토리는 기승전결이 확실하여 어떤 강한 힘의 압력으로 도출된 것에 가까웠다. 소풍은 매해 기업의 자본으로 저어진 인근 놀이 공원으로 갔었고, 야의 봉사는 놀이공원 옆 인공포수 주변에서 미화 활동을 하는 것이었다. 방과 후 활동은 단지 안 상가에서, 친구와 만남의 장소 역시 주로 백화점 입구의 시계탑 아래였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꼭 무채색이었다거나 부정적 기운만을 동반하는 것은 아니다. 그냥 내가 어디에서 쉴 때 먹고 살 지 선택할 수 없었던 시기. 나는 거기 그렇게 LED 빛과 형광 안드로에 반응하며 자라나고 있었을 뿐이었다. 중요한 건 대학졸업 이후, 지하철 2호선을 타고 고향을 떠나는 내가 지금 여기. 철의 끝목에 어떤 모습으로 멈춰서 있는지. 무엇을 보고 듣는지도.

작품 소개: 달 속의 햇빛

보통 시간이 많을 만큼 도시로 스며드는 휴지로 하얀 천과로는 시시각각 변화하고 있고, 내면자의 시선으로만 볼 수 있는 세상이 차이를 드러내 보여 주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장 첫 번째로 시간을 담은 휴지인 작품인 '달 속의 햇빛'을 생각해 냈어요. 그렇게 달 속의 햇빛을 담은 휴지인 작품이 탄생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달 속의 햇빛을 담은 휴지인 작품이 탄생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달 속의 햇빛을 담은 휴지인 작품이 탄생하게 되었어요.

이원경
달속의 햇빛
(Lilou Extraction)
50x50cm, 혼합재료, 2020

시계 유리 조각 채취, 성문 유리
시계 조립, 차전지
시계 수리, 심성사
신주 가루 제공, 진성정밀
조명, 설치 협력, 영연원테크

✦ 로로닐리아는 '장소'와 '매장'을 뜻하는 복합어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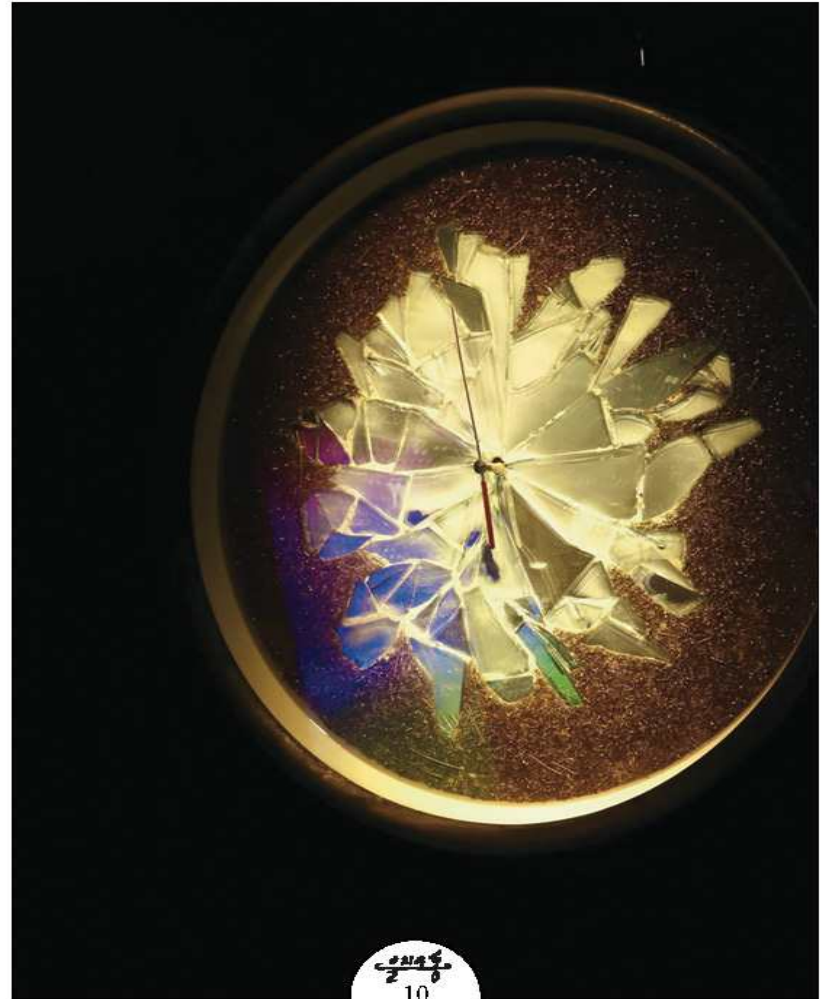
에세이

어떤 공간이 인간에 의하여 친밀한 곳으로의 장소성이 형성되는 데에는 의미 있는 경험을 산출하는 '시간' 그리고 '가시성'이 필요하다고 한다. 특히 물리적 조건보다는 그 장소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가에 대한 감수성이 훨씬 더 중요한데, 지리학자 이두 투안에 따르면 장소를 알아가는 시간은 여러 해에 걸쳐 반복되는 순간적이고 극적이지 않은 경험들을 통해 애착이 생기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

또한 가시성은 단지 오랫동안 같은 위치에 점유해왔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유명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래된 역사가 안고 있는 풍부한 사실들을 기반으로 후세대가 장소의 이미지를 유지하고 재창조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한다. 그렇게 낯설었던 지역이 친밀한 장소로 변화될 때 우리는 비로소 장소 감각을 가지게 된다고 한다.

나의 경우, 2016년부터 시행된 광주청 울지로 디자인 예술 프로젝트를 통해 산림등의 골목길 한 귀퉁이 추상의 빈 공간 속에 일상의 일부를 하루 하루 축적하며 장소 감각을 익혀왔다. 기능적 공간을 미학적 장소로 밀려오며 완성한 프로젝트와 작품들 속에는 공통적으로 '트로필리아'가 발견되어 있음을 발견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나. 그리고 작가들의 아이디어가 도시의 제도와 혼란되어 사회의 한 조각으로 서트 다른 시간의 궤도를 따라 울지로 일대를 부유하며 크고 작은 원을 그리고 있다. 청량한 밤공기를 마시며 한동안 우리들의 정신적 고향이 되어 주었던 골목길에서 마주친 작품들과 당소를 나누어보자. 골목길 터리는 삶이 지치고 힘들 때 떠오르는 당신의 마음의 고향에서, 오래 행복하게 지낼 수 있길 바라는 영원을 담고자 하였다. 언제고 다시 이곳을 기억하고 돌아올 사람들을 맡아줄 울지로 골목길이 좀 더 오래 남아있길 희망해본다. ◆◆

작업실로 옮겨 온 이후, 시계를 통해하여 <가위의 길인상> 전시 바로 이전의 전시 <해와 달이 밝아 올날 밤> 전시에서 착안한 듯했던 문자로 가위의 이미 작품과 좀더 시 상각해 보기로 하여, 여권과 달의 인공적인 빛, 조광 아래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 사는 진짜 우리가 인식하는 시간에 비추어낸 과거 기억의 모임을 그려내고자 했고, 길의 구획이 되는 아이디어 스케치 과정을 기원 후, 직선과 곡선을 갖다 유리조각과 산주자루로 수인하여, 특히 실가로 인정한 개를 하지만 보기에 고문 모처럼의 고대에 얹인 산주자루는 조명을 받으면 윤기투출을 즐기며 해서 여객적인 스케치 매우 마음에 들었어 이후 문학과 시를 가까이하고 표현한 남기 지의 왔다 미술 작업들의 도움을 받아 시계를 회상하게 되는 과정을 수습하여 개 스스로가 지음,이거 시간성을 어떻게 감각하고 있는지 여 사할까 생각해 있었습니다. 전시는 그 시간을 직각적으로 나누는 방식이라고 봐요. (광주문화재단 클라쥬 9월 말에)



을지포커스를 경험하며

저에게 을지로는 낯설면서도 익숙한 공간입니다. 처음 대학에 왔을 때 시간이 남아 무작정 층무로 반대편인 을지로로 건너와 보았습니다. 처음 저에게 펼쳐진 을지로는 마치 영화 속의 한 장면 같았습니다. 가게들이 뽕뽕히 늘어서 옛 느낌을 풍기는 골목들을 보며 마치 영화 세트 속에 온 느낌이 들었고 그런 을지로는 제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렇게 종종 대학교를 다니며 시간이 나면 카메라를 들고 찾던 공간인데 그러다 보니 어느새 을지로도 저에게 익숙한 공간이 되었고 흥미를 잃어 가고 있었습니다.

글: 이윤아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동국대학교 전자전기공학부에 재학 중인 이윤아입니다. 동국대학교 사진 동아리 동그라미의 부원으로 활동하고 있어 이번 행사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이번 프로젝트에 참여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처음 을지 포커스에 참여하며 을지로동 주민센터에 들어와 앉기 전까지 을지로 아카이빙이 어떤 것인지 제가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자리에 앉아 프로젝트에 대해 들으면서 을지로를 사진으로 기록한다는 것은 저에게 흥미롭게 다가왔습니다. 대학 생활을 하면서 취미로 사진을 계속하고 있었는데 최근 코로나로 인해서 출사도 어려워진 참에 저에게 무언가를 제 사진으로 기록하여 남김으로써 의미가 생긴다는 것이 좋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 중 하나는 작가님이 필름을 아시는 가게에 맡겨 두시면 제가 가서 필름을 받고 그 주변 사진을 촬영을 통해 사진을 남기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방문한 곳은 금속을 세공하는 곳이었습니다. 사장님께 필름을 맡김드리자 계속 기다리셨다면서 필름을 건네주셨습니다. 그리고 세공을 하시는 모습도 필름에 담을 수 있었고 오래돼 보이지만 아늑한 가게도 담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갔던 골목은 주로 금속을 다루는 가게들이 많은 골목이었습니다. 작가님이 주신 주소를 따라서 가보니 처음 보는 골목이었습니다.

제가 모르면 골목을 가서 낯설기도 하지만 간판 하나하나 일하시는 분들, 가게들 모두 을지로의 분위기를 너무 잘 풍기고 있어서 좋았습니다. 카메라를 들고 다니며 그러한 장면을 남길 수 있었고 마음에 드는 사진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프로젝트 덕분에 을지로를 더 깊게 알 수 있었고 제가 몰랐던 공간과 그 속에 이야기도 알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프로젝트는 필름 카메라를 이용하여 을지로를 촬영하는 어르신들의 모습을 담는 것이었습니다. 어르신들께 필름카메라를 드리고 설명해 드리고 함께 을지로 거리로 나갔습니다. 다들 사진도 정말 열심히 찍으시고 저에게 사진도 많이 남겨 달라 하셔서 함께 즐거운 출사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일을 하시며 일상을 보내는 어르신들의 평소와는 다른 모습을 담아내는 것이 좋았습니다.

이번 을지로 아카이빙을 통해서 함께한 분들과 친지도 하고 오프식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과 인사드릴 수 있어서 보람도 느끼고 저에게는 정말 좋은 경험이 되었습니다. 단순한 사진 촬영이 아닌 기록한다는 취지로 촬영을 진행할 수 있어서 사진 한 장 한 장이 의미 있고 저에게 더 소중하게 다가온 것 같습니다.

좋은 경험 할 수 있도록 해주신 을지로동에 감사드립니다:) ◆◆

모든 길은 을지로로 통한다

지금은 도로명 주소가 자리잡았지만 아직도 동네 이름은 무슨무슨 등으로 부르는 것이 일반적이다. 내가 사는 동네만 해도 도로명은 만리재로이지만 동네 이름은 만리동 1, 2가 중립등으로 불린다. 그런데 을지로는 도로이름이 곧 동네명이다. 비슷한 예로 종로가 있지만 종로는 도로이름만이지 종로동이라는 동네명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만큼 을지로는 유일하다. 도로이름이 동네명이고 동네이름이 곧 도로다. 을지로는 도로이름과 동네명이 분리되지 않는 만큼 도로와 동네가 한 몸처럼 밀착해 있다는 것일지도 모르겠다. 그래서일까. 을지로는 수많은 골목이 있다.

글: 서광식 (barensdon@naver.com)

무슨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다 을지로와 인연을 맺었습니다. 을지로에 대한 글도 쓰고
영점길에 '을지주방' 이름도 지었습니다. 지리한 장맛비 속에 마을축제 아카데미까지 마치고 나니
평방, 저는 을지로와 사랑에 빠진 걸까요.

골목마다 다양한 색채와 이야기를 담고 있는 그 길들은 작은 내가 흘러 강에 이르듯 을지로 큰 대로로 이어진다. 빗방울이 떨어져 골을 이루고 그 물들이 강으로 흘러들 듯이 사람이며 차며 물류며 무엇이든 을지로로 모여든다. 그렇게 골목마다 복잡하게 나뉜 법정동과 행정동 대신 을지로는 도로명이 주변지역 전체를 아우르게 되면서 을지로는 대재물가의 한 상징으로 우뚝 서있다. '모든 길은 을지로로 통한다.'

사람들은 을지로를 생각하면 제일 먼저 무엇을 떠올릴까. 을지로는 상업지구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바라보면 유명호텔이나 백화점 큰 기업의 사옥 은행 등을 연상하기가 쉬울 것이다. 그러나 을지로는 그런 을지로만 있는 게 아니다. 내가 말하고 싶은 을지로는 을지로 3가를 중심으로 한 조금은 덜 정돈돼 보이는, 조금은 어수선했던, 그 을지로다. 그러나 나는 이 지역이야말로 을지로의 어제와 오늘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을지로의 심장이 아닐까 생각한다. 타일 공구 조명 목재 인쇄 등 다양한 분야의 재료상들이 을지로 3가 주위에 몰려있다. 이 가게들은 을지로를 을지로답게 하는 것들을 꼽으라면 단연 여기 이곳을 꼽아야 할 만큼 을지로의 터줏대감으로 오랜 세월 을지로를 지켜오고 있다. 서울 한복판에 이런 곳이 아직도 남아있을까 싶은 비좁은 골목을 따라 웅장하게

어깨를 부딪치며 서 있는 가게 점포 상가 소규모 공장 등을 보고 있으면 이제는 만나지 못하는 우리의 지난날이 떠오르기도 하는 것이다. 그렇게 따로 있으되 한 편의 점묘화처럼 어우러져 을지로는 커다란 그림을 완성하고 있는 을지로를 보면 이제는 그리워해도 만날 수 없는 먼 옛날의 첫사랑을 뒤흔다는 생각도 한다.

을지로 이 오래된 거리에 이제 젊은이들이 찾아와 등지를 들고 있다. 을지로의 매력에 푹 빠진 창작자들의 작업실, 스튜디오가 하나씩 들쭉 늘어나고 있다고 들린다. 1, 2년 전부터 불어온 북고열풍에 을지로의 특유의 강성과 분위기가 더해져 젊은이들을 끌어당기고 있다. 사람들은 이곳을 '힙한+을지로' '힙지로'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이들이 을지로를 찾아온 이유는 분명할 것이다. 을지로니까. 앞서 모든 길은 을지로로 통한다고 썼지만 나는 을지로의 저 많은 길들이 가능성으로 읽힌다. 아니 가능성이라고 읽고 싶다. 미래를 여는 길, 현재를 던지고 더 높은 곳으로 나아가는 길, 그 길이 을지로라고 믿는다. 그 때문에 젊은 청년들이 이 길에 자신들의 일정과 혼을 쏟아붓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러니 이제 나는 저 열혈 청년들에게 뜨거운 응원의 메시지를 보낸다. 더 많은 젊은 이가 을지로로 모여 들어 자신의 꿈과 이상을 활짝 펼쳐보라고.



나가며

애초 1회만 쓰기로 했다. 원고를 보내고 일이 커졌다. 겨우 마치고 나니 을지로 저 많은 골목 어느 한 곳도 제대로 쓰지 못한 것 같다고 느낀다. 나는 너무 많은 길을 찾아 때마다 길을 잃은 것은 아닐까. 당연히 을지로에 대해 아직 쓰지 못한 이야기들이 남았다. 사랑하는 남자의 손을 잡고 전하고 꿀깃하고 애뜻한 영화를 보러 다니던, 개봉관이라 불리던, 을지로 주변에 보석처럼 박혀있던, 극도 명보 스카라 극장 같은 옛 극장들 이며, 어리석고 순진한 꼬베리(?)였던 우리에게

신문지에 쓴, 만화영화 주제가만 나오면, 빨간(?) 비디오테이프를 진짜 끝내주는 거라고 팔고 사라진 세운상가의 더벅머리 총각이며, 고교 동창끼리 을지로 골목에서 포기롭게 응원가를 부르다 식당 아주머니의 손 사래질을 당한 일 등은 내 안에 아직도 뚜렷한데, 아 그 시절 그리운 을지로는 어디로 가버렸는가. 어렸거나 마냥했으니, 오늘은 을지로 노가리 골목에 숨어들어 맥주잔이라도 기울어야겠다.

◆◆

Euljirodong
Character Design

을지로의
산업

을지로동 캐릭터



캐릭터 디자인 소개

캐릭터 및 일러스트, 편집 디자인 등 그래픽 디자이너로 활동하고 있는 디자인앨범 대표 성정수입니다. 캐릭터 대표작으로는 현대자동차 상용자동차 세계정비 기술경진대회 캐릭터 제작, 공중통신비행사 캐릭터 제작, 다른 디자인자유리 캐릭터 제작, 가톨릭대학교 아이돌 등 다수의 캐릭터를 제작하였습니다. 이번 을지로동 캐릭터도 제작하게 되었으며 향후 더욱 다양한 캐릭터 제작과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이디어 배경

우리 역사에 길이 남을 을지문덕장군의 이름을 딴 을지로에서 을지문덕의 흔적을 전혀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캐릭터로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캐릭터를 만들면서 어려웠던점과 느낀점

조선시대부터 사람도 없고, 이야기도 안된 안양의 중심지, 을지로. 그런데 왜, 이곳 을지로는 을지로를 상징하는 을지문덕장군의 흔적이 없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을지문덕장군을 캐릭터로 표현하고자 결정한 후 우리가 생각하는 을지문덕 장군의 근엄한 모습을 어떻게 간결한 이미지로 친근하게 표현, 인지될 수 있게 하느냐 하는 부분이 가장 큰 숙제였습니다. 기본적으로 캐릭터라함은 친근함이 잘 표현되어야하며 이 친근함이 없다면 캐릭터로서의 역할이 무리야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제서야 탄생하게된 을지로동의 상징 캐릭터 을지문덕장군

다양한 문화와 산업이 모여 있는 을지로, 다양한 볼거리와 젊음이 함께하는 을지로에서 활활 할 을지문덕 장군과 해와 밤의 즐거운 활약을 기대하면서 글을 마칩니다.



을지로동 캐릭터 소개

을지로의 상징인 을지문덕장군 + 을지로의 낮과 밤을 표현하는 해와 별을 귀엽고 친근한 캐릭터로 설정, 을지문덕장군이 낮에는 해의 모습으로 그리고 밤에는 별의 모습으로 함께 다니며 을지로 골목의 구석 구석을 탐방, 을지로의 과거와 현재, 합지로, 노로, 산업 등 다양한 문화를 소개할 수 있는 스토리라인을 컨셉으로 디자인하였습니다.

